

배포일시	2021. 2. 15.(월) 18:00 (총 4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전주 기상지청 관측예보과	담당자	과장 김희철 전문관 양석중 전화번호 063-249-3240

전북 18일(목)까지 기습 강추위 및 대설 주의

- 2월 16일~18일 한파, 급격히 기온 내려가 매우 춥겠음
 - 전북 동부내륙 중심 체감온도 -15℃ 내외
 - 건강관리·수도관 동파 유의
- 17일~18일, 전라북도 3~15cm (전북 서부 최고 15cm 많은 눈)
 - 17일 출근길 교통안전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대비 철저



[2월 17일 예상기압계 모식도]

- 전주 기상지청(지청장 김병준)은 오늘(15일)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강한 한파가 나타나겠다고 밝혔다. 또한, 17일(수)~18일(목) 오전까지 전라북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어 한파와 대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.

[기압계 전망]

-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16일(화) 밤부터 18일(목) 오전까지 해상에서 만들어지는 눈 구름대의 영향을 받는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.
- 15일 낮부터 대륙고기압에 의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하고, 16일~18일은 5km 상공에 -30℃ 안팎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추위의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분석했다.

[추위 전망]

- 15일 낮부터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여, 16일~17일의 아침 최저기온은 15일 아침기온보다 10℃ 이상 큰 폭으로 하강하여 전북 내륙 지역은 -10℃ 내외를 보이면서 강한 한파가 이어지겠다고 밝혔다.
 - ※ 16일 아침 최저기온 : -9~-4℃, 17일 아침 최저기온 : -11~-5℃
- 이 기간(2. 16.~18.)동안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5~10℃ 가량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한 물론 선별진료소 등 야외 업무 종사자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.

- 또한, “철저한 건강관리와 함께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와 비닐 하우스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대한 유의도 필요하다.”고 당부했다. 이번 추위는 19일(금) 낮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.

[많은 눈 전망]

- 16일은 기압골에 의해 오후에 눈이 오겠고, 17일~18일은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 구름대가 발달하고, 이 눈 구름대가 유입되는 **전라북도**에 눈이 내릴 것으로 분석했다.
- 특히, 찬 공기가 유입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눈 구름대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**전라북도**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
-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,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항공편이 결항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.

< 예상적설 >

- (16일 12시~18시) : 전라북도(1~3cm)
- (16일 21시~18일 12시): 전북서부(5~15cm), 전북동부(3~10cm)

[강풍과 풍랑 전망]

- (강풍) 15일 낮부터 서해안에 바람이 35~60km/h(10~16m/s)로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며,
 -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, 18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.
- (풍랑) 서해남부해상은 15일 낮부터 35~65km/h(10~18m/s)의 강한 바람과 함께 2~4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, 강한 바람과 물결은 18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.
 - 특히, 서해남부해상은 눈 구름대가 발달하여 시정이 좋지 않은 만큼 해상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고 전했다.